

기관침습 및 기관압박을 동반한 갑상선종양의 임상적 고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고윤우, 이승원, 장혁순

분화성 갑상선암종은 비교적 예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주위조직으로 침범한 경우는 재발과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기관으로 침범한 경우에는 내원당시 상기도폐쇄의 증상이 유발되어 진단시부터 기관침범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관내강으로 종양이 침습되지 않고 기관압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과정 내지는 수술적 치료시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심한 기관압박을 동반한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삽관시 마취과 의사와 술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두경부암종에 비해 예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분화성 갑상선암종의 경우 이러한 기관 침범시 치료의 범위 즉 수술적 절제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실정이며 갑상선 양성종양의 경우에는 기관침습의 경우는 드물지만 기관압박이 심하여 이미 기관협착이 동반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본원에서 술전 방사선학적 검사, 기관지내시경 및 후두내시경 등을 통하여 기관침범 혹은 기관압박이 의심되었던 갑상선종양 환자 및 수술시 기관침범이 확인되었던 예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고찰을 시행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